

2024. 4. 3.(수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4월 2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

균형발전정책과장

변경옥

02-2133-8608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8쪽

균형발전전략팀장

최영서

02-2133-8619

서울시, 강북권 신성장 거점 개발대상지 5곳 선정... 강북 경제 활성화 이끈다

- 서북·동북권 신성장 거점사업 선정 완료... 일자리·문화공간 부족 강북지역에 활력
- 성산로·왕십리·북한산·중랑천·노해로 일대 입체개발 및 리노베이션으로 혁신
- '25년까지 기본구상·실행계획안 수립, 선정제외 6개 사업은 중·장기 및 재정비 등 추진

- 서울시는 50여 년간의 베드타운으로 여겨져 온 서울 강북권역의 경제 활성화와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「서북·동북권 신성장 거점사업」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. 선정된 지역은 신속추진 형태로 진행되며 상대적으로 일자리와 문화공간이 부족했던 강북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.

<서북·동북권 신성장 거점사업 선정 완료... 일자리·문화공간 부족 강북지역 활력>

- 이번에 선정된 신속추진사업은 ▲성산로 일대 입체 복합개발(서대문구, 30,451㎡) ▲왕십리 광역중심 육성을 위한 입체 도시 조성(성동구, 약 3만㎡) ▲북한산 시민천문대 건립(강북구, 15,635㎡) ▲휘경유수지 일대 수변 문화거점 조성(동대문구, 26,000㎡) ▲노해로 문화 리노베이션(노원구 15,750㎡)

등 5건이다. 이들 사업은 내년까지 기본구상과 실행계획안 수립을 완료하고 '2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.

- 총 11개의 자치구가 사업을 제안했고 시는 사업 필요성과 부지확보 등 실행 가능성을 비롯해 ▲상위계획과의 정합성 ▲파급효과 ▲자치구의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종 대상을 선정했다고 덧붙였다.
- 시는 지난해 '서북·동북권 균형발전 방안 토론회(10.30.)'를 시작으로 시의회, 강북권 자치구와 서북·동북권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에 나섰다. 이후 '서북·동북권 균형발전자문단'을 구성해 신성장 거점선정(안)을 마련하고 지난 3월 27일 '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'에서 최종 결정했다.

<성산로·왕십리·북한산·중랑천·노해로 일대 입체개발 및 리노베이션으로 혁신 >

- 첫 번째 선정 사업은 <서대문구 성산로 일대 입체복합개발>이다. 성산로 일대는 인근에 대학교가 위치해 풍부한 인적자원은 물론 도시철도 서부선 개통에 따른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. 하지만 현재는 지하·지상 공간이 단절되어 있고 상권도 침체해 지역 활력이 저하된 상태다.
- 시는 이 성산로 일대를 지하와 지상을 입체 복합개발하는 형태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는 계획이다. 신설되는 서부선 역사와 지하공간을 연결해 청년창업지원 공간을 조성하고, 세브란스병원 주변 등은 연구·기술개발을 중심으로 한 의료복합산업 성장거점으로 발전시킨다.

- 두 번째는 4개 노선이 지나는 〈성동구 왕십리의 입체 도시 조성〉이다. 우선 성동지하차도의 차량 통행을 폐쇄하고 상부 고산자로 차선을 늘려 원활한 교통 흐름을 만든다. 차량 통행을 막은 성동지하차도를 상업·업무 등 복합생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방식이다. 경찰서, 구청 등도 한 곳으로 이전해 왕십리 비즈니스 타운을 조성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.
- 셋째, 천혜의 자연을 품은 〈강북구 북한산 중턱 시민천문대 건립〉을 통한 동북권 문화·관광 거점이자 주야간 명소로 조성사업이다.
 - 사업지는 '23년 5월 의무경찰대 이전 후 현재 비어있는 공간으로 주변에 인공조명이 적고 눈으로 직접 들어오는 빛이 없어 서울 내에서는 천문대를 건립하기 좋은 위치다.
- 넷째, 하천과 동부간선도로로 인한 지역단절로 그동안 발전에서 소외됐던 종랑천변 동대문구 휘경 우수지 일대를 문화·체육공원으로 복합개발하고 향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따른 상부 공원 조성 등 수변 문화거점을 확대·조성한다. 이렇게 조성된 수변 거점을 인근 배봉산까지 연계해 완벽한 녹지축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.
- 마지막으로 노원구 노해로를 총 7차로에서 4차로로 줄여 보행 구간을 확대해 열린 문화광장으로 리노베이션한다. 동북권 주민 누구나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공유 문화거점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.
- 노원역 주변은 금융권, 쇼핑가 등 상권이 밀집되어 있으나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. 시는 노해로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

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동북권 문화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. 교통량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로 내 보행 구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며, 향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통해 광장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.

- 이번에 선정된 5개 신속추진사업은 특성에 맞는 전략, 사업성 분석, 개발계획안, 단계적 실행방안 등이 담긴 사업별 기본구상과 실행계획 관련 용역을 올해 안에 착수할 예정이다. 기본구상 및 실행계획이 도출되면 '2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.

- 한편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되지 못했으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4곳에 대해서도 중·장기적 검토발전 전략을 통해 신성장거점으로 추가 발전시키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.

- 우선 ▲중랑·청계천 합류부 통합개발 ▲우이천변 감성도시 조성 ▲서울풍물시장 일대 통합개발 ▲홍릉 일대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 등 4개 사업에 대해선 통합용역을 통한 ‘중·장기 발전 전략계획’을 마련한다. 용역을 통해 실행계획 도출이 가능한 사업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신속추진대상으로 변경, 추진할 수도 있다.
 - (중랑·청계천 합류부 통합개발) 합류부 보행교를 조성, 단절구간을 연결해 시민들의 편의를 높인다.
 - (우이천변 감성도시 조성) 수변감성도시 조성을 위한 천변 가이드라인, 거점조성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.

- (서울풍물시장 일대 통합개발) 풍물시장, 동대문도서관 등의 부지를 통합 개발해 노후하고 활용성이 낮았던 공공부지를 문화 관광거점으로 조성한다.
 - (홍릉 일대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) 종합문화예술 회관 등을 조성해 지역문화 예술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.
- 거점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한 2개 사업은 재정비촉진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변경 등 사업 성격에 맞춰 별도 추진할 예정이다.
- (수색·증산 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 방안) 보행교 신설,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은 현재 진행 중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(市) 및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수립용역(區) 등에서 검토한다.
 - (광진 K밸리 청년창업 거점 공간 조성) 건국대 부지에 청년 창업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 및 용도, 용적률 등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통해 개발 여건 조성한다.
-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“서울의 서북·동북권 인구는 448만 명으로 서울시민 절반가량이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음에도 그동안 배후 주거지의 기능만 강조되고 경제·문화적 발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다”며 “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서북·동북권의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는 신성장 거점사업 추진으로 일자리 중심 新경제도시 강북권을 만들어가겠다”고 밝혔다.

| 연번 | 자치구 | 신속추진 대상 사업 | 비고 |
|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1 | 서대문 | 성산로 일대 입체 복합개발 | |
| 2 | 성동 | 왕십리 광역중심 육성을 위한 입체도시 조성 | |
| 3 | 강북 | 북한산 시민천문대 건립 | |
| 4 | 동대문 | 휘경유수지 일대 수변문화 거점 조성 | |
| 5 | 노원 | 노해로 문화 리노베이션 | |

① (서대문구) 성산로 일대 입체복합개발

- 성산로 일대 지상·지하 공간을 입체복합개발하여 도시공간 재구조화



② (성동구) 왕십리 광역중심 육성을 위한 입체도시 조성

- 성동지하차도 평면화를 통한 지하통합공간 조성
- 경찰서, 구청 등 이전하여 왕십리 비즈니스타운 조성



③ (강북구) 북한산 시민천문대 건립

- 의무경찰대 이전부지에 천문대 및 청소년 수련시설을 건립하여 서울 랜드마크 조성



④ (동대문구) 휘경유수지 일대 수변문화거점 조성

- 유수지 복합개발(문화·체육·공원 등) 및 배봉산과 중랑천 연계한 수변감성공간 조성



⑤ (노원구) 노해로 문화 리노베이션

- 노해로 열린문화광장 조성으로 노원역 일대 문화 리노베이션(도로다이얼트로 도로 내 보행공간 확대)



현재 도로단면



도로(차선) 다이어트

